

안동 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5 Autumn VOL.71



안동문화
FEEL

느
낌
이
있
는
관
광

04



재미있는 안동

10



편안한 안동

16



새로운 안동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안동



깨끗한 안동



즐거운 안동

발행인 남상호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지현 편집위원 김주호

주소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7-9917 이메일 jeanle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www.andong.go.kr/theme

발행일 2025년 9월(통권 제71호)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동의 고창전투와 삼태사

/ 글 이한승(국립경국대학교 강사)
/ 사진 국가유산청,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 시내 중심가에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인 '태사묘(太師苗)'가 있다. 태사묘는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 등 삼태사(三太師)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을 말한다. 태사묘에 모셔진 삼태사는 서기 930년(경순왕 4년)에

고창군에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했던 고창 지역 호족이었다. 이때 삼태사가 고려 왕건을 도와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가 바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중요한 기점이 된 고창전투이다.



태사묘 전경



안동 태사묘의 '송보당'



안동 태사묘의 정문 '경모루'



안동 태사묘 삼공신 유물

고려 태조 왕건은 고창전투 승리에 큰 공을 세운 김선평, 권행, 장정필 등 세 사람에게 태사(太師)의 벼슬을 내리고, 고창군(古昌郡)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또한 '동쪽을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의 안동(安東)으로 지명을 바꾼 후 삼태사에게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김선평은 안동 김씨, 권행(본래 이름은 김행)은 안동 권씨, 장정필(본래 이름은 장길)은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처럼 고창전투와 관련된 내용은 『고려사절요』 권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고창군(古昌郡) 병산(甁山)에 진을 치고, 견훤(甄萱)의 군사들은 석산(石山)에 진을 치니, 서로의 거리가 500보 정도였다.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니, 견훤은 패배하여 달아나고, 시랑(侍郎) 김악(金渥)은 사로잡혔으며, 죽은 자가 8,000여 명이였다. 고창군에서 아뢰기를, ‘견훤이 장수를 보내어 순주(順州)를 쳐서 함락시키고, 민가를 약탈하여 갓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곧 순주로 가서 그 성을 수리하고 장군 원봉(元奉)을 문책하였으며, 다시 하지현(下枝縣)으로 강등하였다. 고창군의 성주(城主) 김선평(金宣平)을 대광(大匡)으로 삼고, 권행(權行)과 장길(張吉)을 대상(大相)으로 삼았으며, 그 군(郡)을 승격시켜 안동부(安東府)로 삼았다.”¹⁾라고 전하고 있다.

고창전투는 안동의 옛 지명인 고창군에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벌인 전투이며, 전투의 격전지가 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에 해당하는 병산이기에 ‘병산전투’라고도 한다. 고창전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927년 공산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백제 견훤이 그 여세를 몰아 929년 말에 고창군을 포위하자 이에 격분한 고려 왕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고려 장수 유금필이 이끄는 고려의 선봉대가 저수봉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여 승리하였고, 이듬해 정월에 병산에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고창의 성주였던 김선평과 권행, 장정필이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무찌르면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견훤은 시랑(侍郎) 김악(金渥)과 후백제군 8천여 명을 잃고 퇴각하게 되었다.

한편, 병산전투와 관련된 현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진모래전설’이다. 진모래전설은 병산전투의 진행 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설화이며, 동시에 안동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진모래전설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1984)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견훤은 원래 지령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전시(戰時)에는 모래땅에 진을 쳐 신변이 위태롭게 되면 지령이로 변해 모랫 속으로 들어가 버려 웬만해선 그를 물리칠 수 없었다고 한다. 삼태사가 왕건을 도와 현재의 안동시 와룡면 서지동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견훤은 그 동쪽 낙동강변 모래땅에 진을 쳐 대전하였다. 싸움이 수십 번 계속되었는데도 끝이 나지 않고 견훤은 싸움하다 불리해지면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 가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삼태사들은 전략을 세워 흐르는 강을 막아 못을 만들고 못에 소금을 수없이 넣어 염수를 만들어 놓고 점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싸움이였다. 견훤은 점점 불리해지자 당황하여 지령이로 둔갑하더니 모래 속으로 기어들었다. 삼태사는 ‘이때다!’하며 염수의 못물을 터트렸다. 소금물이 흘러 내리니 아무리 둔갑한 지령이 일지라도 견딜 재주가 없었다. 견훤은 겨우 목숨만 건져 패주하여 안동 땅에서 물러났다고 한다.”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모래전설 속 견훤을 지령이의 화신으로 표현한 것은 견훤의 탄생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견훤의 탄생 설화에서는 밤마다 자춧빛 옷을 입은 남자가 처녀의 침실에 와서 자고 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처녀의 부친이 딸에게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꽃으라고 하였고, 그 말대로 한 딸이 날이 밝은 뒤 실을 따라갔더니 큰 지령이의 허리에 바늘이 꽃혀 있었다. 그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있어 사내를 낳았더니 이가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3년 1월(https://db.history.go.kr/id/kj_001r_0010_0140_0010_0020).

2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1984), 63~64쪽.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041072700&gubun=search>)

곧 후백제 시조 견훤이다.³⁾ 견훤의 탄생 설화처럼 지렁이, 용, 수달, 동삼(童參) 등의 이물과 인간의 결합 형태의 설화를 ‘야래자설화(夜來者說話)’라고도 하는데, 야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소금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모래전설도 수세에 몰린 견훤이 지렁이로 변해 모래 속으로 숨어들자, 권행, 김선평, 장정필 등의 삼태사가 소금을 풀어둔 냇물을 활용해 견훤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모래전설에 나타난 병산전투의 상황을 보면 삼태사가 냇물을 막아 소금을 풀어둔 후 막아놓은 독을 터뜨려 모래에 소금물을 스며들게 한 뒤, 지렁이로 변해 모래 속에 숨은 견훤을 모래 밖으로 나오게 하여 공격을 퍼부어 격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산전투가 벌어졌던 이 냇물은 간수 즉 소금물이 흐른 냇물이라고 하여 ‘간수내’로 불리다가 음이 변해 ‘가수내’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안동시 외룡면 서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가수내마을’이 있는데, 가수천(嘉水川)(가수내 또는 가시내라고도 부른다)이 마을 앞을 휘감아 흐르고 있어 하천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삼게 되었다.⁴⁾ 또한 전설 속에서 견훤이 숨었던 모래를 진모래라고 하는데, 안동댐에 의해 수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진모래전설 외에도 병산전투의 승리에 일조하였다는 밥박골의 안중 할머니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가수내 마을 위에 있는 밥박골은 병산전투 때 안중 할머니가 삼태사군에게 밥을 전해주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밥박골의 안중 할머니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밥박골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던 안중 할머니가 고삼 뿌리를 섞은 독한 술을 빚어서 후백제군에게 제공하여 크게 취하게 한 후 이 사실을 삼태사 군에게 알렸다.



안동 태사묘의 ‘안묘당’ 전경

3 한국민속대백과사전-견훤(甄萱) 참고.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428>)

4 안동시청 홈페이지-안동의 지명유래 ‘외룡면’ 참고. (<https://www.andong.go.kr/portal/contents.do?mId=0302020000>)

곧이어 삼태사와 고려군은 후백제군을 급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이다. 고삼주를 빚어 후백제군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로 태사묘에는 안중 할머니의 넋을 기리는 사당인 '안묘당(安廟堂)'이 자리하고 있다.



안동 태사묘의 '안묘당중수기'



안동 태사묘의 '안묘당 편액'

이 외에도 서지리에는 병산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⁵⁾ 서지리 절골(혹은 사동) 마을의 물불등, 물부둣, 진목, 질목, 심은골, 숨은골, 흰들이 그러하다. 물불등, 물부둣의 경우 가수천이 지나는 산등성이를 역등이라고 하는데, 이 역등에서 지대가 낮은 끝자락을 물부둣이라고 한다. 이는 병산전투 때 고려군이 물을 이용한 공격으로 독에 물이 불어난 등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목, 질목은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진을 치고 싸운 곳이라는 뜻이고, 심은골, 숨은골은 고려 군사들이 숨었던 골이라는 뜻이며, 흰들은 고려와 후백제 군사들이 진을 친 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지리의 석산(石山)에 진을 친

후백제군과 병산에 진을 친 고려군의 거리가 500보 정도로 가까운 상태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안동 지역에서는 병산전투에서 지령이로 변한 견훤을 물리쳐 승리했다는 내용과 결부된 차전놀이의 유래담이 있다. 안동차전놀이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병산전투를 승리로 이끈 권행, 김선평, 장정필 등 삼태사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차전놀이를 시작하였다는 설, 두 번째로 원래 지령이였던 후백제 견훤을 안동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읍민들이 낙동강 물을 짜게 만들고 읍민들 모두 팔짱을 낀 채 어깨로 견훤을 밀어내어 죽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견훤군을 무찌를 때 방어진으로 설치한 채(寨)를 뚫아 여러 사람이 어깨에 매고 진격하여 견훤군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차전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⁶⁾ 안동차전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행해진 대규모 남성 대동놀이로 '동채싸움', '동태싸움'으로도 불리며, 안동에서 오래된 민속놀이 중 하나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1969년에 안동차전놀이는 국가무형유산(지정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으로 지정되었고, (사)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승되는 중이다.

안동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된 고창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이 전쟁에서 후백제 견훤을 무찌르고 고려 왕건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삼태사와 안동 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듯 삼태사의 위패를 모시는 태사묘가 있고, 고창전투와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가 생성되었으며, 더불어 안동 차전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동 지역과 고창전투와의 관계가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안동시청 홈페이지-안동의 지명유래 '와룡면' 참고.(<https://www.andong.go.kr/portal/contents.do?mId=0302020000>)

6 디지털안동문화대전-‘안동차전놀이’(<https://www.grandculture.net/andong/toc/GC02401008>)



안동차전놀이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현장



안동댐에서 내려다본 가을

그래도 가을은

/ 글 김상준 / 사진 김상준, 한국정신문화재단

길고 긴 여름이 드디어 지나간다. 여름은 거칠었다. 그 거친 여름은 모든 것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 뜨거움 속에 어느덧 당연하다는 듯 땀은 흘렀다. 그렇게 또 한번 흐른 땀은 어떤 흔적으로 나의 삶에 남을까.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의 거리는 시간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듯하다. 오래전 여름날 물에 잠겼던 기억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니 그저 기억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추억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를 정의하며 지나간 일들은 그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거칠지만 지나가게 내버려 두자, 언젠가 나를 아름답게 할 나의 어려움, 아픔들을 지나가게 두자.

이렇게 가을의 시작을 앞에 두고 그렇게 또 하나의 기억을 뒤로하고 다른 계절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언제나 시작은 늘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그러니 늘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 절반이라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만든 시작을 우리는 두려움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설렘을 떠올려보자, 바로 가을의 설렘을. 멀리서 보면 희극일 수 있으니 용기 있게 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나간 가을의 아름다움을 떠올려보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자.



아침 식사는 써니베이크샵에서

가을의 아침 햇살은 마냥 포근하지만은 않다. 그래도 싫지는 않다. 더욱이 그 끝이 편안한 아침을 찾아가는 길이라면 더욱더 싫지 않을 수밖에, 빵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원래 이토록 맛있었을까. 어느 쪽이든 계속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편안한 그 자리에 앉아 언제까지라도 지나가는 시간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다. 하지만 일단은 여행이기에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본다.

평화로운 오후 시간, 포근하게 즐거기를 기대하며 한적한 위치에 있는 낙강 물길공원으로 달려왔다. 포근한 햇살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든든한 나무들의 나뭇잎 사이사이로 비치는 은근한 햇살이 참 좋았다. 공원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들,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찬찬히 가진다. 신기하게도 때때로 시간은 훌륭한 해결사가 되어 든든한 조력자인 듯 행세를 한다. 평소 그렇게 시간은 손살같이 나를 쫓아와 야속했는데, 이런 곳에서야 나에게 시간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일까. 나는 너의 적이 아니라 언제나 너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듯 혹은 빛을 받은 빛쟁이가 베푸는 아량처럼, 평소와는 다른 낯선 얼굴을 한 시간을 마음껏 만끽한다.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공원 산책1(낙강물길공원)



공원 산책2(낙강물길공원)

있었던 '척'하는 아름다운 하늘 아래 잊혀져 가는 복잡한 고민들도 언젠가 다시 돌아와 내 어깨에 손을 두르겠지만 이 순간은 온전히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마음으로 외쳐본다. 동시에 크면서 잃어버렸던 내가 남몰래 그렸던 꿈꾸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다.

허기는 언제나 훌륭한 동기이자 변명이 된다. 그 무엇도 허기진 이의 식사 시간을 방해할 훌륭한 변명거리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진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변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황하게 말했지만 배가 고픈다는 이야기이다. 언제까지나 지나가는 시간의 뒷모습을 의연히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은 훌륭히 마무리한 아침 식사가 원천임이 드러났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였으니 속히 점심을 먹어야 한다. 배고픔에 이성을 잃어 여행에서 한 끼의 소중함을 잊고 후회한 기억은 이미 충분히 각인되어 있으니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는 없었다. 따라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다행히 가까운 곳에 훌륭한 선택지가

떠올랐다. 먼 여정을 앞둔 이에게 든든한 한 끼를 추천하기에 해장국은 든든한 카드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곳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시장기가 문제인지 과식을 하고 말았다. 웬지 이번 여행은 뭔가 잘 풀리는 듯했다. 여행자들의 성향과 음식의 성격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듯하다. 어려운 선택에서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듯하다. 아침의 평화로운 미식부터 감자탕으로 이어지는 강렬한 자극이 웬지 하나의 스토리인 듯 흥미진진하다. 한 가지 문제는 앞서 말했듯 생각보다 과식을 한 것이다. 이럴 때는 위장의 한계가 매우 안타깝다. 효율성이 안타깝다. 아이러니하다. 다음번에는 더욱 온전히 즐겨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경험의 부족인 듯하다. 반성이 된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득 안고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이 계절에 아름답게 기억될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된다. 무엇을 하든 이 하루는 추억이 되어 나를 지탱할 또 하나의 기둥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점심식사(정하감자탕)



인문정신연수원 전경

즐거운 추억이었으면 한다. 날씨는 환상적이었다. 구름이 많지 않은 맑고 높다란 하늘, 걷기 좋은 아름다운 골목들 매력적이었다. 걷기 좋은 기분이 든다는 건 소중한다는 것을 알만한 때가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의 아쉬움과 확장된 행복이 동시에 느껴지는 뿌듯한 기분이었다. 다행히 그 고양감이 행복하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안동의 구시가지들을 둘러본다. 구시가지라고 해서 엄청 오래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않았다. 물론 제유소나 오래된 정취가 묻어나는 가게들도 있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오래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새로움과 오랜 정취의 공존이 특별한 듯 궁금함으로 다가온다. 궁금한 이곳저곳 기웃기웃 궁금한 음식 몇 가지를 구매하고 숙소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숙소는 조금 특별하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인문정신연수원이다. 신기하게도 일반 개인도 숙박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진에서도 꽤적인 장소처럼 느껴졌다. 안동 시내에서 조금 들어가야



인문정신연수원 객실 내부



호계서원의 원 모습(원래 월곡면 도곡동에서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했지만, 그 점 또한 숙소로서 마음에 들었다. 정신이 맑아져서 여행을 마무리할 것만 같았다.

맑은 공기를 가르며 달려가 만난 인문정신연수원의 첫인상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잘 정돈된 느낌이었다. 또한 생각보다 큰 규모와 시설이 놀라웠다. 유교문화박물관을 비롯해 호계서원과 지난번 방문했던 예끼마을 등 생각보다 요소요소 잘 갖춰진 듯 보였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안동호는 사뭇 인상적이었다. 건물 안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입구에서부터 기대가 되었다. 숙소인 인문정신연수원은 제일 높은 언덕에 위치했다. 잘 정돈된 조경과 깔끔한 로비의 환영과 함께 안내받은 객실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을 때 맞이하는 산중 안동호와 주변 경관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왜인지 좋은 추억이 될 것만 같았다. 숙소는 5층의 안동호가 보이는 방향이었다. 깔끔한 침구와 실내 시설들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아쉽지 않았다. 주변 시설들도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한동안 숙소에서 바라보는 경치에 푹 빠져 쉬었다.

방에서도 조금 보이는 호계서원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나섰다. 수몰될 위기였던 서원을 옮겨다 놓은 멋진 서원이었다. 정면의 누각에 올라 탁 트인 안동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안한 숙소와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였다.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즐거웠던 하루의 기억을 추억하며 편안하게 몸을 누이기 충분하였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했다. 눈을 떠 처음 만난 것은 떠오르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조금 더 힘을 내어 연수원 뒤 산책로로 향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연수원 뒤편에서 시작하여 호계서원까지 이어진 기분 좋은 숲길을 지나니 다시 한번 아침의 얼굴을 한 서원과 연수원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었다. 덕분에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식은 숙소 건물 지하에 마련된 식당에서 풍성하게 즐겼다. 맛있는 행복을 뒤로하고 이번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도산서원을 향해 움직였다. 잘 쉬며 충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도산서원의 정취를 잘 즐겨 볼 수 있을 듯 했다. 또 호계서원과와는 무엇이 다를지도 무척 궁금했다. 찾길로 10여 분을 더 달렸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와서 준비는 완벽했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을 모두 다 즐기고 올 준비는 완벽했다.



도산서원 들어가는 길



도산서원 전경

입구에서부터 다른 서원들과는 조금 달랐다. 우선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확실히 인기가 있는 곳인 듯했다. 입구를 통해 돌담이 늘어선 아름다운 흙길을 걸었다. 건너편에서 고요히 흐르는 강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저 강은 언제부터 흘렀을까, 입구부터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도산서원의 전경이 눈에 들어 왔다. 입구에는 언제인지 모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을 나무들이 눈길을 끌었다. 눈길을 돌리면 고고히 흐르는 강 너머의 시사단이 보였다. 서원 곳곳은 마치 아직도 학생들이 돌아다닐 것 같았다. 곳곳의 건물들은 잘 보전된 듯

보였고 골목골목 학생, 선비들이 기거하며 거닐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드는 곳이었다. 다른 서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사찰 건물들과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분명 존재하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아직 오연히 자리를 지키는 배움의 전당을 끝으로 또 하나의 여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또 나의 여행은 언제나처럼 다시 시작된다. 끝없는 여행을 통해 살아감으로 늘 새로운 내가 되어가며 좀 더 나은 나를 발견해 나간다.

interview. 안동의 청년 기업가

함께 이뤄가는 색다른 공간

안동시 번영2길8, 해동아트센터

해동아트센터 구성원
김소라, 임종교, 구자을, 홍랑

/ 글 이지현
/ 사진 홍랑, 유희욱

한참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안동문화필 가을호에서는
낭만적인 공간과 그 공간지기를 만나봅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에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해동아트센터** 구성원인
김소라, 임종교, 구자을, 홍랑 씨를 만났습니다.



해동아트센터

Q 안녕하세요? 안동문화필 구독자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해동아트센터는 2024년 안동 원도심에서 '낯선 새로움'을 테마로 전시, 공연,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자 설립되었어요. 전통적인 오리지널리티가 강렬한 안동에 저희의 새로운 시선을 더해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박광수 전시, 인포그래피 전시, 세계유산 전시, 오월장 전시 등을 개최해 왔어요.

김소라(이태원만물상 대표, 서울갤러리 아트디렉터)

A 원래는 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통주를 접했고, 전통주만의 깊이와 다양성에 마음을 빼앗겼죠. 낯선 듯 익숙하고, 오래된 듯 새로웠고... 한 잔의 술맛을 넘어, 술을 둘러싼 이야기와 사람의 기억, 그리고 지역의 숨결로까지 이끄는 듯했어요. 그 마음으로 서울 이태원에 '이태원만물상'을 열었지요. 단순히 술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전통주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태원만물상

'술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 가깝게'라는 마음으로 시음회, 전통주 큐레이션, 음식과의 페어링 등의 행사를 기획했었죠. 십여 년간 이태원만물상은 애주가들의 안식처였죠. 하지만 재개발 소식과 함께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 때 파트너가 안동소주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 자리를 이어갈 것을 제안해 줬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전통주의 뿌리가 깊은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 생각했고, 안동에 왔어요. 안동에서의 첫 3년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던 시간이었죠. 아직 이태원만물상을 모르는 분이 많지만, 한 번 방문한 손님은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는 처음이라고 입 모아 말씀하시죠. 여행객들이 '술의 성지'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술과 사람을 이어가는 보람을 느끼죠.

임종교(페이지에이 대표)

A 안동에서 오랫동안 세계유산, 안동 관광, 고택 보존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어요. 미래문화재단, 안동문화지킴이, 사랑방안동, 세계유산축전과 같이 주로 안동의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현재와 이어가는 작업을 해왔어요. 단순히 안동의 문화를 알리는 일에서 수익이 나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이 될 방법을 고민해 왔죠.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하는 동안 즐길만한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필요한데, 이 여행의 기억을 담아갈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여행상점의 필요성을 느껴서, '페이지에이'를 창업했어요. 안동 여행의 한 페이지를 담아갈 수 있는 기념품을 자체 개발도 하고, 위탁 판매도 하고 있어요. 찜닭골목, 갈비골목, 떡볶이골목, 맘모스빵집, 아차가 등 다양한 핫플레이스를 들리면서 페이지에이도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동 여행 꿀팁도 함께 전수해 주고 있어요. 밤에 가면 좋은 곳, 별이 예쁜 곳, 현지인 맛집, 지금 가면 좋을 행사 등을 알려주면 아주 좋아들 하세요. 요즘은 관광기념품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작년에 안동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해동아트센터 구성원이 각자 '제비원부적키링', '하회탈스테인드글라스 퍼즐', '도산서당 화병'을 출품했는데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올해는



페이지에이

안동의 음식 시리즈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안동찜닭, 안동 간고등어, 안동배, 안동소주, 안동국시, 안동문어를 모티브로 제작했고 열심히 홍보 중이죠.

홍랑(뉴웨이브 대표)

A 디자인 작업을 오래 했어요. 시작은 디자인이 아니라 사진이었죠. 작은 스튜디오에서 피사체 앞에서 사람들의 숨소리, 셔터를 누르는 찰나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시절이 제게도 있었죠.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버거운 현실은 사진가로서의 길을 오래 걷지 못하게 했죠. 생활을 위해 디자인으로 전향했고, 그 선택은 의외로 저와 잘 맞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사진을 붙잡고 있죠. 디자인 속에서도, 좋은 사진 한 장이 가진 가치는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다시 사진을 향한 발걸음 끝에 '뉴웨이브 안동'을 열었어요.

뉴웨이브는 단순히 초상화나 증명사진을 찍는 사진관은 아니에요. 안동 신시장과 구시장을 배경으로 한 시장 스냅 프로그램, 지역 기록을 남기는 아카이빙 작업, 오래된 필름 카메라 렌탈과 사진 현상 대행과 같이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와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공간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시도는 처음이고 유일하죠.



뉴웨이브



서울갤러리

구자을(더컬쳐넷 대표)

A 안동이 고향이지만 도시로 나가 IT회사 S/W서비스 기획자로 10년간 일하다가 8년 전 고향인 안동으로 귀향했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다는 생각으로 내려와서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안동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적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민들이 누리고 싶은 문화를 내가 만들어가 보자는 생각으로 20년 만에 문화기획회사인 더컬쳐넷을 창업했어요.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함께 할 문화사업가 분들과 교류하던 중, 해동아트센터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현재 해동아트센터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디지털캔버스로 전시하는 전시 파트를 맡고 있고요, 이외에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 기획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지나온 서사 가운데 즐거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소라 먼저는 힘들었던 시간이 떠오르네요. 이태원 참사로 함께했던 깊은 슬픔, 안동 산불로 자욱하게 연기로 뒤덮였던 하늘, 그리고 경기 침체로 추웠던 지난겨울. 사업 초반의 변수가 경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몸으로 배웠어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전통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 때문이에요. 첫 모금에 놀라고, 마지막 잔에 웃는 그 얼굴이 저를 미소 짓게 하고 다시 이 자리로 이끌어요.

임종교 지금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원도심 창업지원 사업으로 함께 들어온 많은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워낙 낡고 오래된 곳이라 어려움이 많았죠. 근 1년 여 동안 피 땀 눈물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도심에 점점 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가 지면 불이 다 꺼져서 인적없는 캄캄한 곳이 되버려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가게를 살릴 수 있을까?' 안동시에서도 원도심에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행사 기간만 잠깐 복작거릴 뿐 평소에는 조용해요. 점담 골목을 비롯해 원도심의 유명한 곳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곳들과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광 잊지 못할 순간이 있지요.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안동에서 스냅사진을 남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호흡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돕던 때 이래로 아주 오랜만에 맡게 된 결혼사진 촬영이었죠. 안동이 고향인 신부는 서울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촬영일에 시장 골목마다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필름을 감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몽클했어요.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담는 매개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죠. 어려운 부분은 카메라와 필름을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지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진 문화를 즐기는 지역의 기반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더 있지 않을까 해요. 더 많은 분에게 사진이 '찍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임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Q 다사다난한 안동살이를 잘 극복하셔서 이렇게 안동문화필 구독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해동아트센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참여할 만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아직 극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더 힘을 내어 보려고요. 그래도 날개를 활짝 펼치는 봐야죠. 안동은 민간신앙, 불교, 유교의 메카이기도 하니까 관련 콘텐츠를 살려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데몬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걸 보면서, 안동의 전통 콘텐츠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도심 레트로 투어 프로그램

구자을(더컬처넷 대표) 8월부터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어요. “감성이 있는 레트로 시장투어”로

‘한입 투어’, ‘한잔 투어’, ‘한컷 투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중심이 되지만 주변 상가와도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전통주 잔술 시식과 테이스팅, 안동 콘텐츠를 커스텀해서 만드는 티셔츠 만들기, 안동 원도심에서 레트로 사진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영화모임방 ‘씨네톡’

구자을 인디영화나 독립영화를 함께 보고 테마에 맞게 서로의 느낀 점을 공유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근을 통해서 모집하고 음식이 추가 되는



서울갤러리



이태원만물상

영화를 볼 때에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어요. 영화 '순이'를 볼 때는 라테를 마셨고, 다음 영화는 피자를 함께 먹으면서 보려고 해요.

독서모임방 '페이지사이'

임종교 한 달에 한 번 운영하는 모임으로,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요즘 솜품이나 릴스를 보느라 책에 집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라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읽어보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 읽은 책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다읽은책방'도 운영 중이에요.

- 신청문의: 오픈카카오톡 '해동아트센터'

Q 해동아트센터 구성원의 매력이 지면에 가득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동아트센터가 그리는 미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A 안동 원도심에서 만나는 '낯선 새로움'을 더 많은 분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안동 전통주를 맛보고 살 수 있는 힙한 펍, 이태원만물상이 있고, 안동을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페이지에이가 있고,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기록하는 뉴웨이브가 있고, 다양한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더컬처넷, 그리고 이들이 신나게 작당모의를 하는 해동아트센터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 작당모의가 더 떠들썩해져서 짬뽕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는 날을 기대해요. 짬뽕만큼만 알려지면 좋겠어요. 안동은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온 올곧은 어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진정성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색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불어넣고 싶어요.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자유롭게 표현하는 유연함이 더 생겼으면 해요. 또 좀 더 가볍게 전통을 이야기하고 안동 문화를 즐긴다면 안동 콘텐츠가 더 활기차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낯선 새로움으로 우뚝 서 있는 해동아트센터를 나오면서 다채로운 색깔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해동아트센터의 풍성한 프로그램과 신선함이 안동의 가을을 더 아름답게 물들기를 기대합니다. 편안한 동쪽 나라, 안동에서 서로의 안위를 물어보는 친절함과 포근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안동문화필 가을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동의맛

글, 사진 이희철

갤러리아웃

갤러리아웃은 예술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동시에 선사하는 복합문화공간형 카페이다.

갤러리 공간과 카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감상과 휴식을 오가며 즐길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고 쾌적한 내부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사방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바깥 풍경이 주는 여유로움이 공간 전체에 스민다. 메뉴는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같은 기본 커피부터 차, 에이드, 젤라또, 디저트까지 다양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푸른빛이 인상적인 블루 레몬 에이드를 주문했는데, 무지개색의 새콤달콤한 쏘드기가 들어있어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청량한 에이드와 쏘드기의 씹히는 맛이 잘 어우러져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 준다.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이 주는 영감과 향긋한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 346-118
-  **전화번호** 0507-1449-1440
-  **영업시간** 10:00~22:00 (마지막 주문 21: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안도제유소

안도제유소는 예기마을에서 실제 제유소로 운영되던 공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금은 제유소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곳이다.

이전 상호인 '안동제유소'였으나, 전면 간판의 'o'이 떨어진 모습을 그대로 살려 '안도제유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이곳은 안동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비롯해 커피, 디저트 등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선보인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매장이어서 계단이 협소해 1층에서 주문하면 2층 자리까지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주신다. 시원하게 탁 트인 야외 옥상 테이블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예기마을을 함께 여행 온 반려인들에게도 제격이다. 주변에는 선성현 관아의 옛 모습을 재현한 선성현문화단지과 안동댐 위를 걸을 수 있는 선성수상길 등 기발 만한 명소가 있으니 추천한다.

-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선성길 26-1
-  **전화번호** 0507-1383-5189
-  **영업시간** 08:00~14:00
-  **휴무일** 연중무휴, 네이버 참고





예끼국시가

예끼국시가는 이름처럼 예끼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을 둘러보던 중 편안히 둘러 허기를 달래줄 정겨운 맛집이다.

‘예술과 끼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예끼마을은 걷기만 해도 특별한 감성이 묻어나는 곳으로, 그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식당이 바로 이곳이다. 따뜻한 칼국수부터 시원한 냉국수,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까지 다양한 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른 시간에 방문해야 맛볼 수 있는 김밥은 꼭 챙겨야 할 별미다.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는 국밥류와 만두류도 준비되어 있어, 어떤 취향이든 만족할 만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맛으로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끼국시가에서 현지의 맛과 정을 느껴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선성길 35-1
- 전화번호** 054-859-8253
- 영업시간** 월-목 11:00~16:00 토-일 11:00~20:00
- 휴무일** 매주 금요일

오블라디



오블라디는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와인과 특별한 미식을 즐기고 싶은 날 찾기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아늑함과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즐거움을 더한다.

와인 한 병이 부담스럽다면 글라스 와인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하이볼, 칵테일,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다.

스테이크, 리조토, 파스타, 샐러드 등 풍성한 양식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세트 메뉴를 선택하면 맛과 가성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오블라디는 음악과 와인, 그리고 요리가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데이트는 물론 소모임이나 기념일을 보내기에 제격인 공간이다.



-  **주소** 경북 안동시 강남5길 53
-  **전화번호** 054-843-8382
-  **영업시간** 11:30~23:30 마지막 주문 23:20
(브레이크타임 15:00~17:3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나를 살리기 위해 너로 사는 일. 너를 살리기 위해 나로 사는 일.

/ 글, 사진 김국희



“왜 이걸 그렇게까지 해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질문자 입장에서, 무용해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나, 노력하는 것에 비해 드러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일 때였다. 내 안에서 온전한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낯설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런 일을 “기적”, 혹은 “사랑”이라 부른다고 알게 되었다.

올 봄, 경북도서관에서 그림책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땅을 살피며 어디에 뭘 심을지 탐색했고, 돌아와 농사와 텃밭, 땅과 식물에 관한 그림책을 읽었다. 매 주 목요일마다 수업에 오겠다고 한 참여자들은 여섯 살, 일곱 살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것이 너에게도 좋기를 바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점입가경. 텃밭 바로 옆엔 도서관 놀이터가 있었다. 그쪽으로 거의 순간이동 했나 싶은 친구를 다시 붙잡아와 이 씨앗의

생김이 어떻고, 저 식물의 잎이 어떤지 묻다 보면 묘한 기분이 되었다. ‘별이 다섯 개. 이거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 건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같은 상태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순간, 나는 나를 뵈히 볼 수 밖에 없었다. 나를 제대로 봐야 해결될 문제였다.

수업을 이끄는 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전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전하는 일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각자 고유했고, 나 역시 그랬다. 우리는 우연히, 제 멋대로 이 도서관 한 켠, 같은 시간에 모였다. 회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었다. 우리의 행위가 ‘농사 수업’ 이거나 ‘텃밭 돌보기’로 드러나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 행위를 하며 감각하게 될 나머지에 있다는 것을. 나는 스무번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무엇이 생기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전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한 땅과 식물,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공동체성’, ‘함께 산다는 감각’을 알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새 좋아하게 되는 일. 혹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지루한 이야기도 귀기울여 보는 순간. 내가 심은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매일 도서관에 오는 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마주하게 될 '서로'가, '자신'이 문득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를 나는 온 몸과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다. 우연히 만난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 사랑 하고 사랑 받는 고유한 순간들. 아주 다른 너를 살리기 위해 아주 다른 나를 돌보는 일. 별난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 별난 너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

그런 봄과 여름 사이, 뜨거운 별과 충분한 비로 하회밭의 섬유용 삼들이 무성해졌다. 크게 돌보지 않았는데도 돌아서면 훌쩍 커 있는 그들의 기세는 참 대단했다. 헌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자꾸 나는 반성하는 모양이 되었다. '대체 나는 왜 이모양인거야.' 그러다 또 생각했다. '내 모양이 이렇구나. 생긴대로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가진 확신을 다독이며 계속 '나대로 나아가는 일'이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천천히 알아갔다.

드디어 7월,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하며 추수 세레머니 초대장 맨 앞에 "Ecological Artivism Rhythm" 이라 써 두었다. "내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것이 너에게도 좋기를 바라는 일"을 나답게 해내기 위해,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나 역시 이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목격하기 위해 아주 번거로운 장을 만들었다. 이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것이 너에게도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 가진 것을 꺼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잘 직조된 관광이나 여행처럼 보이지만, 체류형 전시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공유하는 일이니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업으로 시작한 일이고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어찌면 이해하기 어려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놓았다. "땅 위에서의 충만한 움직임, 탄생과



치유의 리듬, 결국, 문명 창조." 라고 써 둔 초대장이 좀 과해 보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나의 진심이고 진실이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회마을 충효당에서 종손님과 대화를 시작으로, 탈춤을 관람한 뒤, 병산서원 유사님의 강의를 듣고 하회줄불놀이까지 본 다음, 만대루에서 모두 함께 즉흥 연주까지 마쳤다. 숨가쁜 첫 날을 보낸 모두는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밤 늦도록 담소를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이렇게 낮을 들었다.

아침 햇살 아래 30여 명의 사람들과 어설픈 낫질을 하며 문득 깨달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모두가 비슷한 몸과 마음, 감각으로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다니. 게다가 상상한 이상의 것들이 안팎으로 더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신이 된 기분이었지만 나는 조물주가 아니었다. 땅과 그 안의 미생물이, 오랜 하회의 전통이, 초가집이, 그 안에 사는 생쥐 가족이, 밭의 두더지가, 화산의 고라니가, 밭독의 도깨비풀이, 불어오는 바람이, 그림자였던 구름이, 정성스러운 병산서원 유사님들이, 하회마을 보존회의 든든함이, 휘어진 하회탈이, 부용대 위의 불타는 낙화가 이 순간을 만들었다. 나로 하여금 땅을 파게 하고, 씨앗을 함께 심자 이야기 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안동에서 했던 그 모든 행위의 언저리나 너머에서, 같이 사는 감각을 살리고 살려준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한 이 모든 일은 결국 너로 살라는 말에 다름 없었다. 그러니 나도 말하고 싶었나 보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로 살아보세요. 이곳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내가 되어주세요. 그러다가 어쩔수 없이 지의류처럼 '우리'로 살아 버리세요. 그리고는

역설적으로 무엇보다 나를 살리고 나로 사는 일의 지극함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문장을 쓰는 나는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새참 시간, 밭에서 말간 콩국수를 함께 말아 먹었다. 땀에 흠뻑 젖은 몸들은 시원한 콩국물을 나눠 마시며 연신 탄성을 터트렸다. 그리고 수확을 마친 모두는 마을 뒤편 낙동강을 향해 걸었다. 물 위에 동동 떠 있자니 몸 속에 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바랐던 장면을 이미 보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기분이 되었다.

전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몇 차례 친구들이 왔고, 다국적 그룹이 두 팀 정도 방문했다.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 독일 등지에서 온 친구들 역시 하회의 땅 위에서 비슷한 리듬으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덥고 힘든 상황에서 분위기를 돋우고자 어설픈 노동요를 부르니, 중국의 평야에서 올렸을 긴 외침에 가까운 가락과, 남부 이탈리아의 들판에서 부르던 삼 수확 노동요까지 선물로 되받았다. 나는 우리가 손으로는 삼을 베면서 사실은 거의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을 분명히 지켜 보았다. 땅을 보거나, 낮을 휘두르며 하는 이야기들은 흙과 미생물을 통과해 다시 옆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사랑과 감사 그 자체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이루었다고 느낀 다음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다 이루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시작했던

작업이 어느덧 공동체성을 띄고 제 길을 의미있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농사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운 좋게도 안동시에는 대마 줄기를 기계로 가공해 실로 뽑아내는 시스템이 올해 마련되었고 마침 그 실로 첫 직물이 만들어졌다. 다음 단계의 실험을 할 때라는 긍정적인 바람과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 실험은 단지 개인의 치유를 넘어, 우리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문화 전반을 바라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삼을 단순한 작물이 아닌, 삶과 예술을 잇는 매개로 보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함께 서 있던 밭에서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 올린 감각과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발효되는 중이다. 시간이 쌓여 새로운 맛과 향을 내듯, 관계와 기억이 켜켜이 쌓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 발효의 가장 드라마틱한 매력이다. 우리 안에서 발효된 이야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선한 마음과 깊은 수양을 쌓은 사람이 가장 흔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 친구들과 대화하다 농담같은 말을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영혼까지 정화된 상태에서는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성과 예술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자본이 순환하는 구조를 상상한다. 농사든 옷이든 작품이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고 누구와 나누느냐이다.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던 시간이 그렇듯, 삶은 서로의 영혼을 향해 웃어주는 그 한순간에 빛난다. 그 순간을 위해 나는 다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의 이 풍경이 또 다른 세대에게 ‘다 이루었다’는 감각으로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회마을에서 발견한 리듬의 유산 해소의 리듬에서 해방의 리듬으로

/ 글, 사진 양애진

기계적 시간과 자연의 시간

지난 하회 시농제 때 씨앗을 뿌렸던 밭은 불과 석 달 만에 숲이 되었다. 원래 10월을 예정했던 수확은 예상보다 한참 앞당겨졌다. 자연의 시간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비웃듯 흘러간다. 비가 예정보다 자주 왔고, 식물들은 그 리듬을 따라 몸을 키웠다. 결국 우리는 이번에도 기계적 시간표를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확인했다. 리듬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맞추는 것이다. 이때 '맞춘다'라는 말은 단순한 순응이 아니다. 조율이자 협력이고, 긴장 속 공존이다. 하회의 전통은 바로 이 조율의 기술 위에서 자랐다.



하회의 두 가지 놀이 - 해소의 리듬

이번 수확제에는 하회마을의 두 가지 대표 놀이가 함께였다. 하나는 양민들의 놀이인 '하회탈놀이'다. 가면을 쓰고 서로의 신분을 바꿔 살아가는 시간이다. 다른 하나는 양반들의 놀이인 '선유줄불놀이'다. 배를 띄우고, 불이 달린 줄을 강 위에 늘어뜨려 불꽃을 흘려보내는 시간이다. 모두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놀이였다. 하회마을이 600년을 버텨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두 가지 놀이에는 조선 사회의 계급 구조가 담겨있었다. 조선의 유교 질서는 감정과 권위를 철저히 분리했다. 이상적인 인간상은 절제와 예법으로 무장한 '군자'였다. 양반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과하게 드러내는 것은 곧 품위를 잃는 일이었다. 양민은 노동과 세금, 군역 속에서도 양반에 대한 예를 지켜야 했다. 불만과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오직 '놀이'라는 정해진 판 안에서 안전하게 해소됐다.



하회탈놀이 - 양민의 감정 해소

오후 2시, 우리는 내리쬰는 햇빛을 피해 탈놀이 전수관을 찾았다. 하회탈놀이가 한창이었다. 탈춤은 그 당시 시대상의 눈으로 봐야 했다. 계급사회에서 불가피했던 긴장감을 느껴야 했다. 주지, 각시, 중, 선비... 다양한 사회계층이 무대에 등장했다. 탈을 쓰면 사람은 변했다.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고, 평소에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양반을 조롱하고, 중을 놀리고, 부정을 고발했다. 여과 없는 '말'이 만드는 긴장과, 얼굴은 가린 '탈'이 주는 이완이 거듭 반복됐다. 얼굴을 가렸기에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눈빛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감춤과 감춰지지 않음, 그사이의 역동은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냈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한곳에 고이지 않고 흘러감으로써, 누구 하나 파괴하지 않았다. 고도의 조율 기술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놀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이었다. 가면극이 끝나면 가면을 벗어야 했다. 신분의 경계를 벗어났던 모든 이들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웃음과 해방감은 무대 위에서만 허락되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억눌림이 기다렸다. 해소는 있었지만, 해방은 없었다.

선유줄불놀이 - 양반의 감정 해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부용대로 향했다. 하회를 품고 흐르는 낙동강 자락, 강변 모래톱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여러 가닥의 줄들이 걸쳐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회자가 “하나, 둘, 셋!” 외쳤다. 그 순간 줄들이 세차게 흔들리며 크고 작은 불꽃들이 우수수 흩날렸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서양의 불꽃놀이는 위로 솟는다. 하지만 하회의 줄불놀이는 아래로 떨어졌다. 줄에 매달린 솟 봉지들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빛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달랐다. 뽕나무 솟은 가벼워서 불이 가볍게 내려오지만, 소나무 솟은 무게감 있게 찬찬히 내려왔다. 바람결을 따라 고요하게 흩날리는 줄불의 불꽃, 강 물결을 따라 잔잔히 흘러오는 달걀 불의 불꽃.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며 위로 치솟아 팡팡 터져버리는 서양의 불꽃놀이와는 달리, 자연의 흐름을 온전히 따르며 만들어지는 지극한 아름다움이었다. 그 불꽃 속에서 겸허함과 감동이 올라왔다.

선유줄불놀이의 정점은 '선유'였다. 배 위에서의 풍류. 저 멀리서 양반들의 노랫가락이 들려왔다. 이상하게 구슬펄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내 얼굴을 바닥에 묻고 엉엉 울고 말았다.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돌이켜보니 그 안에서 내가 본 것은 해소의 슬픔이었다. 양반들은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에는 탈처럼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묻어있었다. 권위를 유지하는 존재들도 그 체제 안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유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풀 수 있는 순간이었다. 탈놀이의 탈들이 웃음 뒤에 슬픔을 숨기듯, 선유의 노랫소리에도 억눌린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해소의 리듬의 한계

탈춤과 줄불놀이는 모두 감정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놀이었다. 하회탈놀이는 가면을 쓰고 서로의 입장을 경험하는 리듬의 장이었다. 가면을 통해 잠시나마 서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선유줄불놀이는 겉으로는 양반들의 풍류 같지만, 실상은 모든 계층의 손발이 맞아야만 완성되는 복합 리듬이었다. 줄불을 만드는 사람, 부용대 위에서 줄을 내리는 사람, 강가에서 불을 붙이는 사람, 줄을 당기며 불을 조절하는 사람까지. 조금이라도 호흡이 어긋나면 리듬은 무너졌다. 하회마을은 양반과 양민 계급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낼 줄 알았다.

다만 그 리듬은 어디까지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숨구멍에 불과했다. 감정과 권위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쪽은 권위를 지키느라, 다른 쪽은 권위에 복종하느라. 감정은 철저히 관리되고, '허용된 무대'에서만 흘러나왔다. 해소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줬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놀이가 끝나면 억압은 그대로 돌아왔다. 이것이 '리듬의 유산'의 양면성이다.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인 동시에 억압을 영속시키는 장치였다.

리듬을 잃어가는 사회

조선시대의 감정-권위의 분리는 계급사회가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공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비전문적이다’라고 평가받는다. 남성은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며 권위를 지켜야 하고, 여성은 감정을 드러내지만 권위는 박탈당한 채 소비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몸과 마음의 리듬이 따로 놀게 된다.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둔해지거나, 마음이 요동치는데 몸은 마비된다. 이 단절이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의 리듬을 잃고, 외부가 만든 리듬에 종속된다. 학교가 정한 시간표, 사회가 정한 경로, SNS의 알고리즘이 그것이다.

하회탈놀이와 선유줄볼놀이는 이런 사회에서 ‘분리를 넘어선 연결’을 가능하게 한 리듬 장치였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끊겼다가도, 남은 자들은 다시 살아낸 오래된 리듬. 덕분에 나 역시 그 속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관객과 무대, 양반과 양민, 남과 나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이었다. 하회의 진짜 유산은 형식이 아니라 ‘리듬’이다.



낫질이 만들어낸 공동리듬

새벽 5시, 낫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내 키를 훌쩍 넘는 대마는 나무처럼 두꺼운 줄기를 뿔내고 있었다. 몸들은 서로 간격을 맞춰 서고 수확을 시작했다. 한창을 몰두했을까, 어느새 무성한던 숲에 그늘이 사라졌다. 베어낸 작물들은 눅혀져, 비와 햇빛을 맞으며 젖고 말리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리듬이다.

인간은 자연의 조력자일 뿐이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우리는 시원한 낙동강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햇빛에 달궈진 모래에 몸을 문으며, 앞으로 작물들이 꺾여낼 리듬을 온몸으로 배웠다.

해방의 리듬은 리듬의 재창조

하회마을에서 만난 리듬은 나에게 ‘함께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내가 마주한 슬픔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일시적 해소를 넘어선 지속적 해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해소의 리듬’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방의 리듬’으로 확장해야 한다. 해방은 파괴가 아닌 ‘리듬의 재창조’다. 억눌린 감정과 권위를 잊고, 몸과 마음을 묶어,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해소가 순간적 카타르시스라면, 해방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숨이다. 단번의 파열이 아니라, 매 순간 이어가는 호흡이다. 그 호흡이 몸과 마음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순간을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리듬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숨은 여전히 외부의 시간에 맞춰질 것이다.

하회탈놀이와 선유줄볼놀이, 그리고 공동수확에서 경험한 모든 리듬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리듬 공동체의 원형이었다. 하회의 유산은 건물도, 의례도, 기록도 아니다. 단언컨대 하회의 유산은 ‘리듬’이다. 그 리듬은 해소의 슬픔을 지나 해방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감정과 권위를 다시 잇는 다리, 몸과 마음을 다시 만나게 하는 흐름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토대다.

해방의 리듬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단순하다.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 끝내는 스스로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것. 이 작은 리듬의 회복에서부터 우리는 억압의 구조를 서서히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리듬을 살아내는 한, 하회는 과거의 마을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이 숨 쉬는 ‘현재의 마을’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그 정신을 담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 글,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인문정책팀



1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안동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지켜온 도시이다. 유교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사상이 꽃피운 안동은 조선 정조가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칭했듯, 공자와 맹자의 고향처럼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유구한 전통과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안동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안동은 유교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된 도시이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학사상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계승되었고, 현재까지도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정신문화 수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수십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도산서원



하회마을

무속,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신앙이 공존하는 안동은 국내 최초의 지역학인 '안동학'을 통해 지역의 문화지층을 탐구하고, 한국정신문화의 독자성과 동아시아 문화권과의 연결성을 조명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은 국내외 학술 교류로 이어져,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도 자리매김했다. 하회마을과 유교책판은 각각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안동의 문화적 깊이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안동은 '평생학습도시'로서도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비정신을 오늘의 시민교육으로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정신문화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더불어,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석주 이상룡, 일송 김동삼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은 안동인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시민과 청소년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안동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오랜 전통의 향약 정신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연대와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문정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특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남녀노소, 계층과 국경을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평등과 해학의 장으로, 지역의 전통 탈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탈문화와 공연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동은 한글문화 보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의 발견지이자, 다양한 한글 문헌과 내방가사, 음식 조리서 등을 통해 여성의 삶과 언어문화가 정성스럽게 전승되어 온 곳으로, 우리 고유의 문자와 생활문화를 온전히 품고 있는 고장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과 정신문화의 집대성지이자 미래 비전의 중심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다. 국내 유일의 유교문화박물관과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비롯한 방대한 기록유산을 바탕으로 전통이 현재로 살아 숨 쉬고, 미래를 이룰 정신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도시이다.

이렇듯 안동은 전통과 현대, 철학과 실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정신문화의 중심지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호칭은 단지 상징이 아닌, 시대를 관통해 온 실천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이 담긴 이름이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정신문화의 길, 그 중심에 안동이 있다.



하회마을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14) 개회식

2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찰과 실천의 장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전통과 공동체 중심의 삶의 철학을 간직해온 안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찰과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국제 공공포럼이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에서 2014년 출범했다.

지난 10년 동안 포럼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이리나 보코바 제10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저자 등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나아가 참가자 간 교류를 통해 인문적 성찰을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23)
이리나 보코바 제10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2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15) -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23) - 청소년인문독서토론회



제1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24)



제12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25) - 사전 강연회

바탕으로 한 사회 발전을 모색하며, 오늘날 인문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려 왔다.

또한 포럼은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orld Humanistic Cities Network)'를 구축하여,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의 국제적 거점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16개국 27개 도시 및 기관이 참여해,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인문가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기후 위기·사회적 양극화·공동체 붕괴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인문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적 장으로 포럼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11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안동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가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함께하여,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심해지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과 조화'의 가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인문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대중 강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문가치 어린이뮤지컬, 독서토론회와 청소년 공모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 전시·공연·체험 부스 등 다양한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인문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열린 인문도시 안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누리집 (www.adf.kr)을 살펴보자.



제12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25) - 포스터

3 인문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안동

인문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문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문가치를 확산해 나가며, 안동은 인문도시로서 그 매력을 더 드러내고 있다.

인문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문가치 in 안동'

'찾아가는 인문가치 in 안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사고의 주체로 참여하고 인문가치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인문 토크콘서트다.

문학, 과학, 심리, 여행 등 다양한 분야와 인문을 결합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문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성찰-대화-실천'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강연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강연자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며, 일상 속 인문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2022년에 시작한 이래, 매년 큰 호응을 얻으며 안동 청소년 인문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24 찾아가는 인문가치 in 안동(경일고)



2024 찾아가는 인문가치 in 안동(안동고)



2024 찾아가는 인문가치 in 안동(성희여자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 '인문가치대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문가치 실천과 확산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인문가치대상'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인문가치대상은 매년 공모를 통해 개인과 단체부문 수상자를 선정하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상의 역대 수상자로는 3,000원 김치찌개로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문화·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전한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2021년 단체부문 우수상), 7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교육·문화·의료 분야에 기여한 '故두봉 주교'(2022년 개인 부문 대상),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인문 교육과 공동체 형성에 힘쓴 삼보컴퓨터 설립자이자 박약회 회장 '故이용태'(2023년 개인부문 대상), 전국 곳곳에 복합 인문·문화 공간 '지관서가(止觀書架)'를 조성하고 인문 강연을 이어온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2024년 단체부문 대상) 등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인문가치대상을 통해 인문 정신의 실천을 조명하고, 인문가치가 일상과 사회 속에서



2021 인문가치대상(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2022 인문가치대상(故 두봉 주교)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문캠프



주한외교단 팸투어(K-인문 인사이트 투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 인문캠프

우리 인천할래? 안동의 인문자원 탐방 '인문캠프'

안동의 풍부한 유·무형 인문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인문체험 프로그램 '인문캠프'는 '우리 인천(인문친구)할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문을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문캠프'는 전국 초·중·고학년 가족이 안동의 전통 인문자원을 함께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청년인문캠프'는 20~30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자기 성찰의 시간과 인문소양을 키우고, 지역 인문자원을 탐방하며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2박 3일 여정으로 구성된다.

다가오는 10월 '우리 인천할래요?' 3기 인문캠프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가을 안동에서, 일상의 틀을 벗어나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돌아보는 뜻깊은 인문여정에 함께해 보는 건 어떨까?



9. 25.(목)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10. 23.(목) ~ 11. 15.(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 5갤러리



10. 24.(금) 10:30, 19:30 / 10. 25.(토) 11: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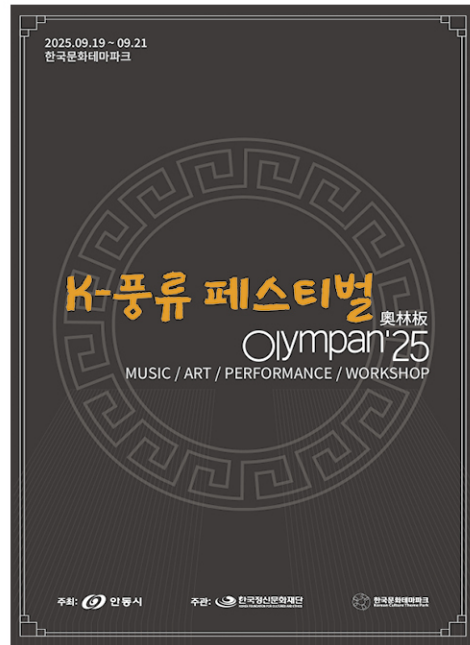


11. 14.(금) 19:30 / 11. 15.(토) 17: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안동의
축제·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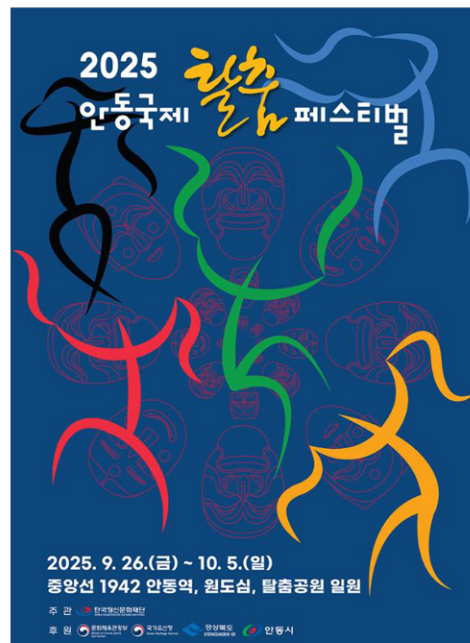
8. 30.(토), 9. 27.(토), 10. 25.(토), 11. 29.(토) 15:00
세계유교문화박물관



9. 19.(금) ~ 9. 21.(일)
한국문화테마파크



9. 24.(수) ~ 9. 28.(일)
안동 임청각



9. 26.(금) ~ 10. 5.(일)
중양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